

② 해외업체 동향

대형 M&A없어도 잔물결이 무섭다

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 M&A 활발 ... 알카텔 두 건 인수합병 단행

해외 IT업체들의 M&A는 워낙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 대형사건이 아니면 세인의 주목을 한 눈에 받진 못한다. 소니와 에릭슨의 휴대폰 신회사 설립이나 벤큐의 지멘스 인수 정도라야 관심의 축에 낀다. 그러나 스치기 쉬운 작은 M&A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시장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해외 업체들이 올해 진행한 인수합병 사례를 모았다.

글 | 김종을 기자(모바일타임스)

엔비디아는 이달 들어 포털플레이어(Portal Player)를 3억 5700만 달러에 인수키로 했다. 포털플레이어는 하드 디스크 내장형 아이팟이나 샌디스크의 MP3플레이어 전용으로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다.

엔비디아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 차세대 PMP, PDA, 휴대 게임기, 휴대폰 시장에서 포털플레이어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술과 엔비디아의 GPU 기술을 통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노키아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체인 독일의 'gate5'를 인수했다. 게이트5는 베를린을 거점으로 하는 비공개 기업. 1999년에 설립돼 약 7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 내비게이션 기기(PND) 메이커에 지도 등의 위치정보 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노키아측은 "장소 검색이나 지도 표시, 내비게이션 등의 위치 기반 서비스는 노키아 N시리즈 단말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하다"며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노키아는 지난 9월 발표한 GPS 기능 탑재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Nokia N95'에 게이트5의 기술을 채용한 바 있다.

노키아는 게이트5의 멀티 플랫폼 전략을 통해 심비안, 리눅스, 윈도모바일, 팜, 자바 등의 각종 플랫폼에 대응하는 휴대전화기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인터넷 네트워킹 리더인 시스코 시스템즈는 모바일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기 위해 10월 미국의 이동통신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오레이티브(Orative)'사를 인수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시스코는 자사의 통합 커뮤니케이션(Unified Communications) 포트폴리오를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이동통신 기기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공급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레이티브는 시스코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기능을 기업용 휴대폰 사용자에게까지 확장시키는 이동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스코는 지난 3월, 자사의 서비스 지향 네트워크 아키텍처(SONA)에 기반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발표하고, 어떠한 규모의 사업자든 그들의 통신 시스템을 기존 IT 인프라스트럭처와 통합할 수 있도록 단일 통신 플랫폼을 완성시킨 바 있다.

알카텔이 노텔의 UMTS 라디오 액세스 사업부를 인수한 건 지난 9월 벌어진 인수합병 중 가장 큰 사건이었다. 알카텔은 UMTS 시장에서 알카텔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브로드밴드 액세스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 때문이라고 인수배경을 설명했다.



보다폰, 오렌지 그룹과 같은 우수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노텔의 제품과 기술력을 인수함으로써 알카텔은 기존 모바일 기술력에 더해 이 분야 기술적 우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알카텔은 전세계 14개의 UMTS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특히 한국·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영국 등 3G 선도 국가들의 지배적인 통신 사업자와의 관계 강화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GSM/EDGE 분야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도 3G분야에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토로라가 전자태그(RFID)·와이파이 제품 등을 주력으로 하는 심볼테크놀로지를 39억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한 건 9월이었다. 모토로라의 심볼테크놀로지 인수 금액은 6년 전 이 회사가 제너럴인스트루먼트를 인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모토로라는 심볼테크놀로지를 네트워크 사업부 아래 두어 자사의 와이파이메시·와이맥스·캐노피 제품과 심볼테크놀로지의 임베디드 와이파이 및 RFID 제품 간 결합효과를 노리게 된다. 심볼테크놀로지는 전 세계에 52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17억7000만달러의 매출에 3230만달러의 이익을 기록한 회사다.

퀄컴이 샌디에고에 위치한 휴대폰 소프트웨어 및 테스트 제공업체인 켈폰을 인수한 건 8월이었다. 켈컴은 켈폰의 제품과 연구인력을 인수하는 것으로 IMS와 멀티미디어 도메인 아키텍처는 물론 멀티미디어 기능 및 다기능 3세대 솔루션을 보다 빠르게 WCDMA/UMTS시장 및 CDMA2000 시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은 인텔의 '순수' 모바일 프로세서 사업 부분을 6억달러(한화 약 5760억원)에 인수했다. 인텔의 '순수' 모바일 사업분야 프로세서는 리서치 인 모션(RIM)의 '블랙베리 8700'을 가동시키는 인텔 PXA9xx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코드명: '허몬'), 팜의 트레오 스마트폰과 모토로라의 큐(Q) 등에 사용되는 PXA27x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코드명: 벌버디)가 있다.

같은 달, 라자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Raza Microelectronics, Inc.)도 AMD의 MIPS 기반 AMD 알케미(Alchemy) 프로세서를 인수했다. AMD의 알케미 프로세서는 초당 400MHz 성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PMP시장의 50%를 점유했다고 알려진 디지털큐브의 'V43' 모델에 채용돼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인텔과 AMD가 자사 대표적인 비즈니스를 포기한 것은 모바일과 컴퓨터를 명확히 구분지어 비즈니스를 하자는 차원.

프리스케일도 팔렸다

10월 15일(현지 시각) 프리스케일이 블랙스톤그룹 주도의 사모 펀드(PEF) 컨소시엄에 176억 달러에 매각된다고 밝혀진 것은 큰 사건이었다.

이 컨소시엄에는 블랙스톤그룹을 비롯해 칼라일그룹·퍼미라펀드·텍사스퍼시픽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PEF 컨소시엄은 프리스케일의 발행 주식 전량을 주당 40달러에 인수키로 했다. 이 금액은 지난 2005년 '썬그드일(113억달러)' 이래 미국 IT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프리스케일은 "이사회에서 매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모토로라에서 분사한 프리스케일은 임베디드칩을 생산하는 최대 독립기업 중 하나로, 주로 모토로라에 휴대폰용 칩을 공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베이스밴드칩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다.

컴퓨터용 프로세서 업체였던 이들은 모바일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지만,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모바일보다 PC에 좀더 가까운 울트라모바일 PC(UMPC) 등 신규 사업군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 업체들이 휴대폰 기반 모바일 사업을 정리하게 한 동인으로 풀이된다.

AMD는 모바일 프로세서를 팔았지만 ATI를 인수하는 것으로 컴퓨팅 분야를 강화했다. AMD는 ATI와의 합병으로 성장,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 특히 기업 및 모바일 컴퓨팅 분야와 소비자가전 시장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인수계약 조건에 따라 AMD는 ATI의 모든 유통주식을 42억 달러 현금과 5700만 주의 AMD 보통주를 지급해 인수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 모토로라는 영국의 TTP커뮤니케이션즈 인수를 통해 세 불리기에 들어갔다. TTP커뮤니케이션즈는 휴대폰용 프로토콜 스택 및 플랫폼, 반도체 IP코어 등을 개발하는 TTP콤(TTPcom, 본사 영국 캠브리지 소재)의 모회사이다.

모토로라는 TTP커뮤니케이션즈 인수로 로우 엔드 및 미들 엔드 휴대폰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4월 알카텔은 루슨트와 합병을 결의하는 것으로 업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로써 매출규모 약 250억달러(약 24조3000억원)에 달하는 제 2위의 거대 통신장비업체가 탄생하게 됐다. 시가총액은 무려 330억 달러 규모.

양사가 통합할 경우, 전체 종업원 수는 8만 8000명에 달하며, 루슨트 산하 벨연구소를 포함할 경우, 연구원 규모는 2만 61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양사 합병으로 이 통합회사는 에릭슨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네트워크 통신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에 버금가는 이 분야 2위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마이크론은 지난 3월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업체 Lexar Media를 합병했다. 낸드 플래시 사업 강화를 위한 것. 마이크론은 합병에 따라 Lexar Media가 보유하고 있던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와 시스템 설계 기술·브랜드·소매 채널 같은 것을 통합시킬 방침이다.

Lexar사는 메모리 카드, USB 플래시 드라이브, 카드 리더 같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는 94개 정도 갖고 있다.

현재 올림푸스·삼성전자·샌디스크·소니 등에 기술 라이선스를 한 상태이다.

올 초 보다폰은 터키의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인 텔심(Telsim Mobil Telekomunikasyon Hizmetleri)을 인수했다. 텔심은 터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GSM 방식의 이동전화 2위 서비스 사업자로, 05년 8월 현재 가입자 87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21.4%. 